

會誌는 임상간호 실무 교육에 더 비중되어야



임상간호원의 입장에서

전주대수병원 수간호원 이 숙 자

새 시대의 간호업무와 우리 회원들의 발전을 위해 끊임 없이 수고하시는 우리의 협회임원님께 76년도 새 해에는 더 많은 수고를 해주시도록 감사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 간호지가 나올 때마다 우리의 협회가 전회원을 위해서 일해오고 있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고 우리의 전문직업에 긍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급변하는 사회의 변천과 과학문명의 고도의 발달로 우리의 간호직도 눈부시게 시대와 발맞춰 병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으나 우리들이 10~20여년 전에 배운 학문과 기술로만은 절대적 부족감을 느끼며 나이 탓과 시대 탓에 앞서서 꾸준히 새로운 학문과 새 방법 등을 우리 기성간호원이 자각해서 배워야 할 때가 오고 있음을 우리 전회원 특히 임상간호원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간호단위가 저희 병원에도 16units에 각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히 인원배치를 간호

과에서 실시해 줍니다.

하루 하루 소명감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맡은 바 일을 계속해서 보람을 갖고 간호의 한 분야에 열심히 일하다 보니 본인 자신도 계산해 보지 못한채 10여년의 간호원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간호지를 받아서 처음부터 끝 페이지까지 열심히 읽노라면 항상 임상간호원들의 문제는 거의 실리는 일이 적고 간호행정자, 학교 교수진, 보건간호원, 양호교사들의 입장에서 많은 세미나 학술논문이 게재되어진 것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상경험 등은 거의 실려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간호과에서도 75년도에 임상교사를 두어서 1달에 2번씩 전체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각 unit에서는 필요대로 1-2번/1달 conference를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특수 기구 사용법, 이론과 간호방법, 특수질병 제복습 간호문제점 등의 해결 등 여러 분야에서 교육 program을 갖고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전국의 종합병원에서는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모두들 전 간호원에게 재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앞으로의 임상간호원이 필수적으로 감당해야 할 과제인 듯 합니다.

저의 욕심으로는 76년도 새해에는 전국의 종합병원, 보건간호원, 양호교사 등이 병원에서의 특수질병, 통계자료 등의 논문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임상에서 직접 요구되는 실무교육의 주요 내용과 간호 문제점 그리고 임상간호원들이 더 힘을 내고 좀더 새 간호지를 읽을 더 흥미를 갖고 읽을 수 있게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합니다.

76년도에도 많은 회원이 국외로 진출할 전망이 많다는데 이론으로만 알기 앞서 경험과 체험 그리고 일선 임상에서의 실시로 실력없는 사람이 되지 않고 간호원 누구라도 내분야만은 자신있게 알 수 있어서 환자에게 보다 나은 간호를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